2024년 3월 25일 전북 2024 - 20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3월 26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25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4년 1/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정원석, 조사역 이솔빈
Tel : 250-4082, 4083 Fax : 250-4095 E-mail : jeonbuk@bok.or.kr

"한국은행 전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서 지역본부-전북본부로 접속) 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붙임1)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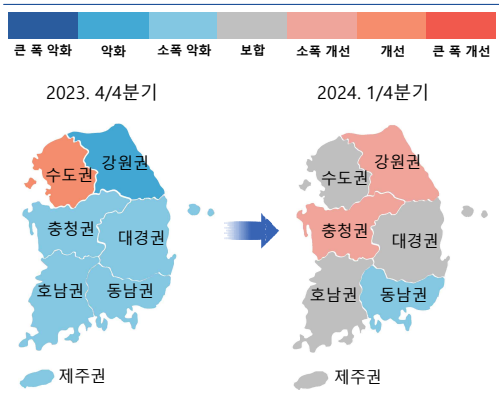
(1) 개 황

전북 경기 소폭 악화

2024년 1/4분기 중 전북지역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의 경우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은 소폭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4분기 중 전국 권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충청권, 강원권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동남권은 소폭 악화되었으며 나머지 권역은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 경기[1)]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2024년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지, 금속가공제품, 비금속제품 등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전기장비 등은 증가하였고, 음식료품은 보합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자부품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4년 1/4분기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화학제품은 건설업 악화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등으로 인한 대유럽 수출 감소[1)]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였다. 제지의 경우 수요가 많은 골심지 비중을 늘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생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가공제품은 수소전기 승용차 수요둔화로 차량용 수소탱크를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비금속제품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판유리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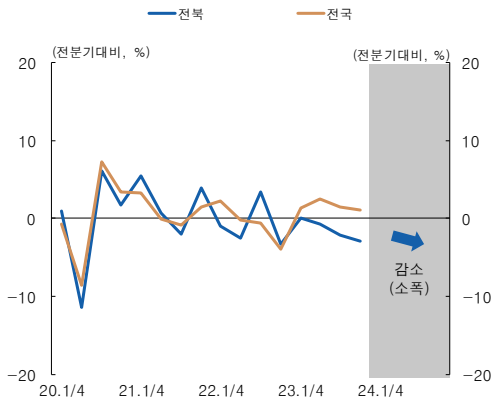
반면, 자동차는 건설업 악화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부진하여 트럭생산이 소폭 감소한 상황이나 버스의 경우 수소전기버스 증산 등에 기인하여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부품은 브레이크 및 충전모듈과 관련된 신규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생산물량이 증대되었다. 철강의 경우 2023년 4/4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된데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여 개선되었다. 다만 건설, 기계 등 전방산업 상황이 좋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국산 특수강 증가로 내수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선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기계는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농번기 대비를 위한 트랙터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전기장비는 2023년 정부의 전력입찰 물량

1) 일부 업체의 경우 대유럽 운송운임이 이전대비 4배로 급격히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 예상보다 낮은 가운데 중국관련 매출이 2024년으로 이연되었다. 이에 따라 크게 악화된 2023년 4/4분기 실적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2024년 1/4분기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다.

음식료품의 경우 가격인상으로 인한 수요감소로 일부 품목의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생산라인 증설로 생산이 증가한 품목들도 혼재하면서 보합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2024년 2/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 및 전기장비는 1/4분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생산이 지속될 전망이다. 비금속제품은 탄소섬유 관련 생산라인 증설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일부 품목도 있겠으나 유리관련 산업의 경우 전분기 수준의 생산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지는 수요부진 등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전 분기의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동차는 수소전기버스 증산라인 완료 등으로 생산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부품은 신규제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생산량이 소폭 증대될 전망이다. 전자부품의 경우 반도체 업황 개선, 방산용 센서 등 품목 다변화에 기인하여 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제품은 예멘 후티 반군 이슈가 서서히 완화되고 일부 생산라인 정비가 완료되면서 생산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속가공제품은 정부의 수소버스 증대 계획[2)] 등으로 상용수소용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료품의 경우 비스킷류 등의 생산라인 증설로 생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건설, 기계 등 전방 수요산업 부진 지속,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생산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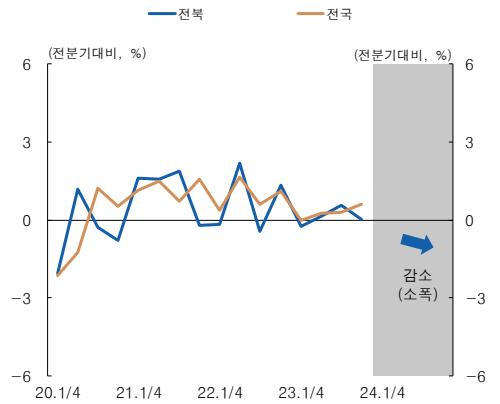
2024년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이 소폭 감소하였고 운수업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3)]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백화점은 대규모 판촉 행사, 리뉴얼 등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는 고물가로 가계의 지

2) 2024년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목표는 1,720대로 전년대비 1,000대 가량 상향조정하였다.
3) 1~2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6.0(1월 96.5, 2월 95.5)으로 2023년 4/4분기(월평균 93.6)보다 2.4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다.

출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은 지역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 판매는 고물가로 내구재 소비가 위축되면서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외식 수요가 줄어들면서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업은 고금리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운수업은 국내·외 여행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4] 소폭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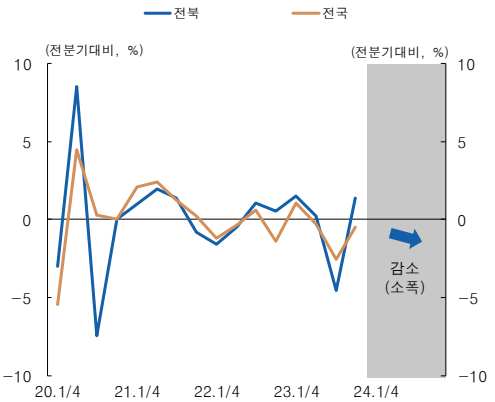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2024년 2/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여행 증가세가 이어지고 일부 대형소매점에서 신규 브랜드 런칭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감소

2024년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매판매액지수[1)2)]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 추산

재화소비는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내구재는 레저용품 및 자동차, 준내구재는 의류·잡화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비내구재의 경우 문구·서적, 연료 등에서 소비가 감소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관련 소비가 줄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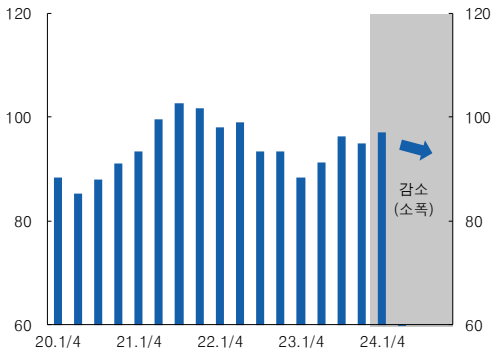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2024년 2/4분기 민간소비는 1/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및 이동수요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물가와 금리,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4) 1월 중 전북 방문자수는 827만명으로 2023년 4/4분기(월평균 803만명)보다 3.0% 증가하였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설비투자 소폭 감소

2024년 1/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부품의 경우 지난 분기 일부 공장의 리쇼어링으로 인한 설비투자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기계장치 등의 이관으로 설비투자가 축소되었다. 전기장비는 2023년 4/4분기 중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50MW 규모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공장이 준공됨에 따라 2024년 1/4분기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화학제품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 수요 부진으로 인해 유지 보수수준의 설비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비금속제품의 경우 탄소섬유 관련 생산라인 증설이 지속되고 있다.

설비투자실행BS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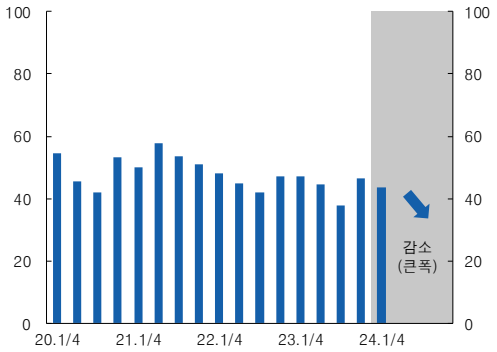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2024년 2/4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비금속제품의 경우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로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되나 여타 업종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당분간 유지보수 수준의 설비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건설투자 큰 폭 감소

2024년 1/4분기 중 건설투자는 원자재가격 상승, 미분양 누적, 고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2024년 2/4분기 건설투자는 지역 주택시장 침체, 미국 금리인하 시점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고금리 지속 등으로 감소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업황BSI[1)]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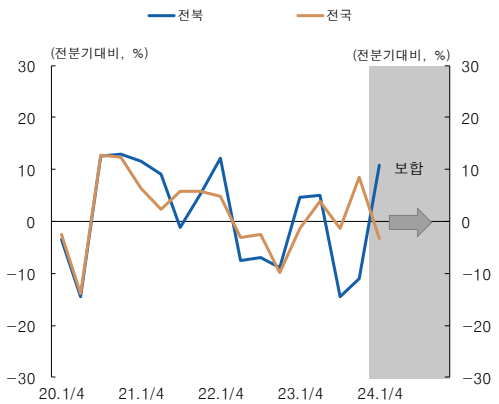
수출 보합

2024년 1/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기계가 증가하고 비철금속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자동차는 감소하였고 철강제품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계의 경우 운반하역기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 증가하였고, 비금속제품은 탄소섬유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 증대에 따라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글로벌 경기부진 및 중동지역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제품의 경우 지난 분기 유럽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출(일평균)[1)]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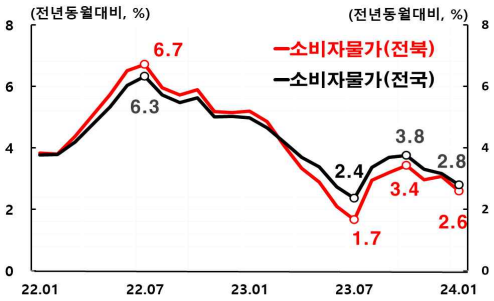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수출 여건의 개선이 쉽지 않아 2024년 2/4분기 수출은 이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철강제품의 경우 중동지역 관련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면서 수출이 소폭 개선될 여지도 있으나 글로벌 건설 및 기계관련 수요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보합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전기대비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2) 현장리포트

최근 전북지역과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차이 분석

전북지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022년 7월 정점(6.7%)에 도달한 후 2023년 7월(1.7%)까지 둔화흐름을 이어가다가 다시 3%대 수준으로 상승한 뒤 2024년 1월 중 2%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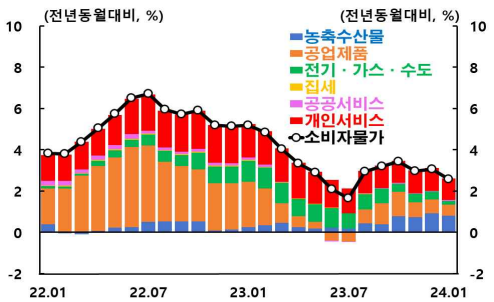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전북과 전국)



자료: 통계청

2023년 이후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의 흐름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3년 10월 이후 전국과 전북의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의 격차가 감소[5]한 것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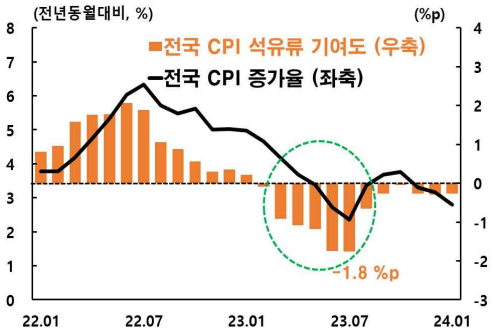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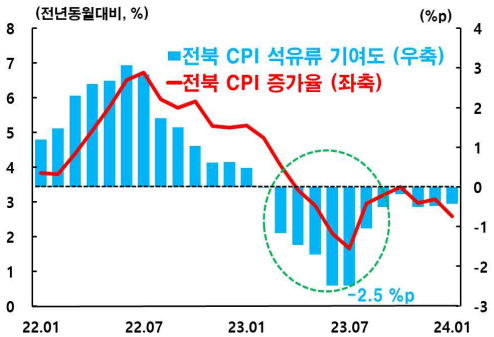
2023년 초중반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큰 폭 하락은 석유류가격 하락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그 기여도가 2023년 7월 기준으로 -1.8%p 정도이다. 전북의 경우 석유류가격 하락의 영향력은 전국에 비해 더 크게[6] 작용하여 2023년 7월 기준으로 기여도가 -2.5%p에 해당된다.

전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및 석유류 기여도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전북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및 석유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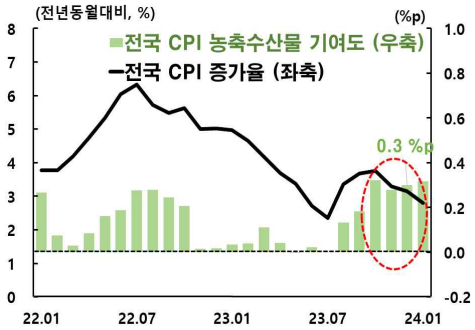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2023년 10월 이후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흐름을 지속한 반면 전북의 경우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의 영향력 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2023년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수준으로 상승하기

5) 23.10월: 0.4%p → 24.1월: 0.2%p
6) 소비자물가 구성품목 중 석유류의 가중치가 전북지역(67.2)이 전국(46.6)에 비해 높은 것도 원인중에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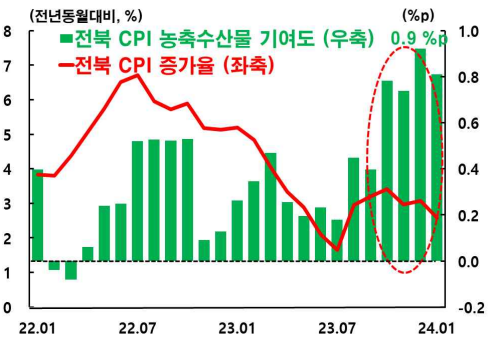
도 하였다.[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농축수산물 기여도가 0.3%p 정도이지만 전북의 경우 0.9%p에 달하였다.

전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및 농축수산물 기여도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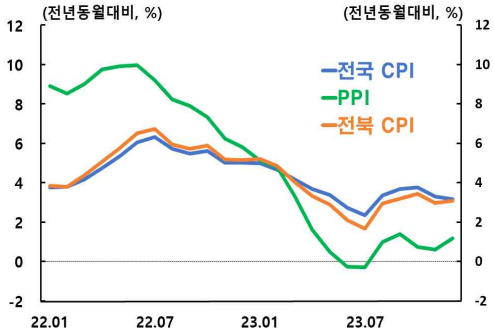
전북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및 농축수산물 기여도



자료: 통계청,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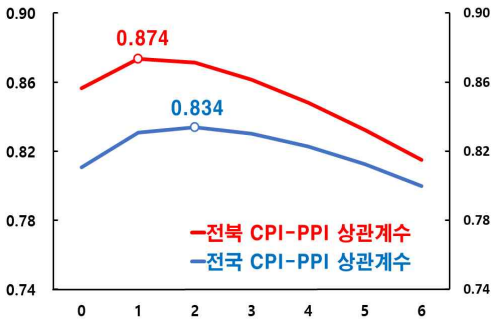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도매물가에 해당되는 생산자물가(PPI)는 소비자물가(CPI)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생산자물가가 변화한 다음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시차상관계수를 통해 선후행관계를 살펴본 결과 생산자물가는 전북의 소비자물가보다 1개월 선행하고 시차상관계수가 0.87이었다. 또한 전북의 경우 전국에 비해 선행정도가 1개월 더 빠르고 효과도 큰 편이다. 이는 전북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농림어업 비중이 높아 산지와 소비지간 연계가 높고 유통구조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CPI) 및 생산자물가(PPI)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생산자물가(PPI)와 소비자물가(CPI)의 시차상관계수[1)2)]



주: 1) 가로축은 PPI 상승률이 CPI보다 몇 개월 선행하는지를 나타내는데, 't=1' 인 경우 PPI가 CPI보다 1개월 선행한다는 의미
2) 2010년-2023년 월별자료 활용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저자 계산

전북지역은 소비자물가 구성품목 중 농산물 및 석유류의 가중치가 전국대비 큰 편이고 농산물관련 산지와 소비지간 연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가격변동이 클 경우 전국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

7)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23.10월)→3.3%(11월)→3.2%(12월)→2.8%(24.1월)와 같이 지속적으로 둔화했지만 전북의 경우 3.4%(23.10월)→3.0%(11월)→3.1%(12월)→2.6%(24.1월)로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나타났다.